

이 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의 주장

- 2016.11.17일 집앞에 편의점이 개업하면서 빛공해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음
- 너무 밝은 불빛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으로 편의점에 이야기하였으나, 본사 담당자와 해결할 문제라고 하여 1달 넘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받음
- 환경공단에서 빛공해 측정을 하여 기준이 일부 초과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, 이후 조도가 조금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편의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커녕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답답한 상황임
- 편의점에 개업하기 이전에 조금만 가게가 있어서 큰 불편사항은 없었으나 편의점이 생긴 후에 조명의 밝기도 밝아졌으며, 24시간 운영하는 관계로 야간에 간판 조명 불빛으로 인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없었음
- 편의점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관련규정대로 설치했으니 문제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듣게 되었으며, 이후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환경공단에서 빛공해 측정 이후 기준을 다소 초과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후 일부 간판조명에 대해서 소등 조치함
- 계속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 비용을 들여 거실과 자녀방에 암막을 설치하였으나, 더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, 신청인의 이러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간판 소등 및 실내조명도 일부 소등해야 한다고 생각함

- 피신청인 측의 저감 노력에는 조금이나마 감사를 드리며, 암막커튼 설치 이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함

나. 피신청인의 주장

- 환경공단에서 측정 이후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시간 간판 양끝 불빛 소등조치를 하였으며, 매장 내 블라인드 추가 설치를 통해 점포로부터 노출되는 불빛을 최소화하고 있음
- 암막커튼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경우 건물 내 모든 가정에 암막 커튼 설치를 요구하여 결국 신청인 집에도 암막커튼 설치를 못하고 있음
- 신청인의 지속적인 클레임으로 경영주 및 담당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, 신청인의 추가 배상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치 이내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운 상황임
- 피신청인이 설치한 간판조명은 다른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기준 및 규격으로 설치되었으며, 일부 생활불편 사항 발생 시 주민들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, 이번 신청인의 경우에는 암막설치 및 빛공해 피해에 대해서 일부 보상의사 등도 있으나 신청인이 계속 조명불빛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난감한 상황임
- 신청인의 불편사항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편의점 영업여건상 간판조명 및 내부조명 불빛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우며, 편의점주의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어 간판조명의 경우 원상 복구를 원하는 상황임
- 현재 신청인과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사 차원의 검토 및 신청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함

2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현황

- 분쟁지역은 일반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보안등의 불빛은 큰영향을

미치지 않으며, 또 다른 빛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소음 등 환경피해를 주는 요인이 없는 정온한 환경이며

- 편의점과 신청인 주택 창문과의 이격 거리는 도로폭 6m를 포함하여 약 10여m 정도 떨어져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으며, 광고 조명은 건물 좌·우측면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, 피해 조명은 우측면에 위치한 것임

나. 신청인 주거 건물 현황

-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
- 연 면 적 : $177.03m^2$
- 주 용 도 : 주택
- 구 조 : 연와조
- 사용승인 : 1988.12.22.
- 전 입 일 : 2012.4.2.

다.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

- 사업장명 : 000 00지점(편의점)
- 위 치 : 00구 00로
- 영업개시일 : 2016. 11.17
- 외벽 조명 현황
 - 길이×폭 : 좌) $2.67m \times 0.5m$, 우) $5.43m \times 0.5m$
 - 조명방식 : 내조형, 체널레터형
 - 광원종류 : LED

라. 관할 행정관서의 현장 지도 점검 결과

- 신청인의 관할구청(건설관리과)에 간판 광고조명 피해와 관련한 1차레 민원제기(2017.6.7.)에 한국환경공단에 빛공해 측정 요청 등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음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- 당사자 제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한국환경공단의 빛공해(휘도) 측정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고자 함
- 한국환경공단 현지조사 및 광고조명 휘도 측정결과(2017.10.11.)
 - 빛공해 피해는 일몰 후 1시간 이후에 측정하였으며, 측정위치는 편의점 간판과 약12m 지점인 피해지점 정면 주거안 창문에서 측정함
 - 빛공해 평가는 『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』 제6조에서 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광고조명의 휘도에 대해서 측정함

<빛방사허용기준(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)>

측정 기준	구분	조명기구 종류	적용시간	기준 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발광 표면 휘도		점멸 또는 전광류	해진 후 60분~ 24:00	평균값	400이하	800이하	1000이하	1500이하	cd/m ²
			24:00~ 해뜨기 전 60분		50이하	400이하	800이하	1000이하	
		비점멸 (광고조명)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최대값	50이하	400이하	800이하	1000이하	

- 이에 따라 해당 광고물의 측정된 최대 평가휘도는 810(cd/m²)로 나타났으며 빛방사 허용기준(최대휘도 800cd/m²)과 비교할 때 기준을 초과함

4. 판 단

- 광고조명에 대한 휘도측정 결과 빛공해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, 신청인은 그간의 삶에서 빛으로 인한 공해의 피해를 모르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가져왔으며, 편의점의 입점으로 인한 LED광원의 밝은 빛에 노출되어 간판조명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잠을 들지 못하여 가족 전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생활의 큰 변화를 겪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
5. 배상수준 검토

가. 배상책임

- 피신청인 0000은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나. 배상범위

- 외벽 조명의 LED광원이 노출되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족생활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000 가족(4명)에게 배상한다.
- 외벽 조명의 광원으로 인한 배상액은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『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』에 따라 산정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,600,000원과 빗공해 차단 암막 블라인드 설치비용 100,000원으로 한다.

다. 배상액

- 빗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1,600,000원과 암막 블라인드 설치비용 100,000원, 재정신청 수수료 5,100원을 합하여 총 1,705,100원이다.

6. 결 론

-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규제기준, 측정자료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